



한국대댐회는 1972년 창립되어 올해로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인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 회원 4,000명을 대표하여 한국대댐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대댐회는 세계대댐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댐에 관한 계획, 설계,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을 선도해왔으며, 세계대댐회에서 주요 회원국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댐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댐은 경제 성장의 사회기반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댐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댐을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국가가 지닌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와 환경의 변화는 댐 관리 패러다임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댐 관리는 안정적인 물 공급, 홍수 조절 등에 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댐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댐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를 넘어 미래지향적 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한국대댐회는 국내 유일의 댐 전문학술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대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자원 개발 및 보전의 선구자로서 한국대댐회를 견인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립5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제 한국대댐회가 향후 50년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고 댐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전문학술단체로서 자리를 더욱 공고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배덕호**



한국대댐회의 5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대댐회 5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대댐회는 1972년 설립된 이래 댐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교류, 국제대댐회 참가는 물론 회원국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댐 및 수자원시설의 기술 향상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소양강댐을 비롯한 대규모 다목적댐을 구축하며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의 대역사를 이뤄나가기 시작했으며 훌륭한 댐 축조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는 한국대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댐을 비롯한 수자원 관리기술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경제성장 동력원인 만큼, 한국을 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려서게 하는 데 한국대댐회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면서 식량생산의 핵심자원인 물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댐의 기능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며 댐 수역의 수질과 환경문제 또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대댐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귀 기울이며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의 선진화된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대댐회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국제 댐 전문기술단체로서 무궁한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회장
이병호**